

전주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나서

공공 대여소 2곳에서 5곳으로 확대·운영

전주시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늘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주시시는 사회적기업 착한자전거와 민·관 협력 기반의 대여·반납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2곳에서 운영되던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올해 3곳 추가해 총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자전거대여소는 통학과 통근, 장보기 등 생활형 시티바이크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오염과 에너지절약,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운영되던 자연생태박물관과 덕진하천관리소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시에서 운영하고, 올해 추가 설치된 덕진공원과 전주역, 종합경기장 등 공공자전거 대여소 3곳은 사회적기업 착한자전거와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여소는 1월 1일과 설 명절, 추석 명절,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동절기(11월~다음해 3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4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이용요금은 기본(1시간) 2000원이며, 1시간 초과 시마다 10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을 지참하고 대여소를 방문하면 본인여부 확인을 거친 뒤 자전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이하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반영, 보다 짜임새 있고 발전적인 대여소 운영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공공형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기업 등을 연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공공형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전주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도 총 30회에 걸쳐 운영한다.

시는 올해 1학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안전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관내 중학교에서 20차례에 걸쳐 안전교실을 운영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착한자전거 박석순 대표는 "전주시민은 물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공공 자전거 이용을 통해 생태도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람중심 생태도시 비전에 맞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자전거 문화 확산을 통해 인간존중과 환경 친화의 가치를 담은 교통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며 "친환경 생태도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올바른 문화정착과 이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5세대 이상 19세대까지

전주시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존 20세대 이상 거주하는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부터는 5세대 이상 19세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하반기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그간 전주시 2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거해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누락돼 전주시 관내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134개 단지)에 거주하는 1430세대는 각종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16일 전주 도도동 인근 주민들이 "주민 동의없는 항공대대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전주시민회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 소음 재측정을"

전주시민회가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허술한 소음측정을 비판하고 전주시 예산으로 소음측정 재개를 요구했다.

전주시민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해 수행한 소음측정은 피해를 축소하는 데만 방향을 맞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전주시가 비용을 부담해 소음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

하는 도도동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측감정 증거신청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증거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지역주민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허술한 소음측정에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소음측정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회는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 지역주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객관적 소음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미뤄진 항공대대 이전 부지 지장물 철거작업이 재개됐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항공대대 이전부지인 도도동 현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현장에 배치한 인력을 철수했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농성 중인 진입로가 아닌 옆길을 통해 공사 인력을 현장에 들여보내 공사 예정부지 내 비닐하우스 2개 등에 대한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김영재 기자

근무하던 주유소 사무실서 금고 털어 달아난 30대 '달미'

김제경찰서는 16일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경 김제시 덕지산로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다 업무가 외출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73만원과 손목시계(시가 10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사무실내 CCTV영상을 확보해 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대구시 달성군의 한 병원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박씨는 주유소에 취업한지 7일 만에 생활비가 필요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소년원 출소 열흘 만에 또 차량 훔친 10대 검거

동종전과로 소년원에서 나와 열흘 만에 또 다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6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차량절도)로 정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경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썬타페 차량 내부에 있

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군은 이날 훔친 차를 타고 익산에서 경기도 안산을 왕복해 40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군이 동종전과로 소년원에 입소해 지난 5월말 출소, 소년원에서 나온 지 열흘 만에 다시 차량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진수 기자

전북경찰, 잇따른 비위 구설수

간부 '성추행' · '금품요구' 신고받고 조사 착수

전북경찰이 최근 며칠 사이 현직 경찰의 '성추행'과 '금품요구' 등 비위 신고가 잇따라 접수 돼 홍역을 앓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직 경찰의 성추행과 '금품요구' 등 비위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술에 취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B씨 옆을 지나가다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봉변을 당한 B씨가 A경위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A경위가 도주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피해 여성에 대해 조사를 벌여 A경위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도 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대상자에게 사고처리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수백만원의 요구한 혐의로 완산경찰서 C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경위는 지난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D씨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경위는 조사대상자인 D씨가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고 사고처리를 도와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자

사기 도박꾼에 특수렌즈 판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사기 도박에 쓰이는 '뚝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위반)로 기소된 남모(47)씨와 이모(47)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특수콘택트렌즈 등 3800만원 상당을 보관한 뒤 이중 3000만원 상당의 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